

세계가 놀랐다, 트럼프 승리 ‘대이변’

클린턴 여유있게 꺾고 제45대 미국 대통령 당선
“미국 우선하겠지만 모든 국가 공정하게 대할 것”
정권 되찾은 공화당, 의회 상·하원도 모두 지כה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마침내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트럼프는 8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열린 대선 투표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대통령에 오르는 파란을 연출했다. <관련기사 2·3·14면>

트럼프는 다음 날 오전 3시(한국 시각 9일 오후 5시)께 대선 승리에 필요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을 넘긴 288명을 확보해 역사적인 대권을 거머쥐었다.

그의 러닝메이트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도 부통령에 함께 당선됐다. 개표 결과, 트럼프는 3대 경합주인 플로리다와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를 석권하는 등 경합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고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전통적인 우세주를 대부분 지키는 기염을 토하며 비교적 쉽게 승부를 결정지었다.

3조 원의 자산가인 억만장자 부동산재벌로 공직·군 경력이 없는 ‘아웃사이더’가 미 대통령이 된 것은 사실상 240년 미국사 최초의 일이다. 그는 내년 1월 20일 취임시 만 70세로 미 최고령 대통령이 되는 기록도 세운다.

특히 지난해 6월 ‘미국 제일주의’의 대선 출사표를 던진 트럼프가 레이스 내내 고립주의와 보호무역을 주창한 것을 고려

하면 그 충격파는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미 동맹의 재조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협상을 밝힌 터라 한반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승리가 확정된 뒤 뉴욕 힐튼미드타운 호텔에서 한 승리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미국을 우선하겠지만 모든 국가를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8년 만에 대통령을 배출해 정권을 되찾은 데 이어 상·하원 다수당을 모두 장악하는 기염을 토했다.

반면 ‘이메일 스캔들’에 시종 발목이 잡혔던 클린턴은 ‘역대급 비호감’의 이미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8년 전에 이은 대권 재수에 실패하면서 미국사 최초의 여성 대통령 꿈을 결국 접고 정치권을 떠나게 됐다.

민주당은 ‘8년 통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3연속 정권 연장에 실패하며 야당으로 전락했다.

트럼프는 다음 달 19일 각 주 선거인단의 투표, 내년 1월6일 상원의 당선 발표 등 요식절차를 거쳐 1월20일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해 4년 간의 임기를 이룰게 된다. /연합뉴스



“내가 대통령” 예상을 뒤엎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가 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힐튼 미드타운 호텔에서 열린 선거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쇼크…세계경제 요동

증시·외환시장 출렁…안전자산 돈 몰려
코스피 2.25% 하락, 환율 14.5원 폭등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은 가운데 한국 경제는 물론 세계경제가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쇼크 상태에 빠졌다.

특히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혼란스러운 국내 상황, 경제부총리 교체, 둘러싼 컨트롤타워 공백 우려가 겹치면서 불확실성까지 높아진 상황으로 경제 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지난 6월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가결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폭락을 맞은 세계 증시와 외환시장은 요동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45.00포인트(2.25%) 떨어진 1958.38로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24.45포인트(3.92%) 떨어진 599.74로 장을 마감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도 장중 최대 6% 이상 폭락하며 충격에 빠졌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때와 마찬가지로 개표 시간이 아시

아 증시 개장 시간과 겹치면서 가장 먼저 충격을 받은 셈이다. 이날 일본 도쿄 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 지수는 전날보다 5.36% 하락한 16,251.54로 거래를 마쳤다. 홍콩 항셱지수는 1.95% 하락한 22,462.80에, 항셱중국기업지

수(HSCEI·H지수)는 2.77% 내린 9391.89에 장을 마쳤다.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증시는 0.62%, 선전종합증시는 0.58% 떨어지는 데 그쳤다. 대만 가관지수는 2.98% 떨어진 8943.20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트럼프 리스크에 놀란 자금은 주식시장을 벗어나 안전자산인 채권과 금, 엔화로 몰리는 양상이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증가는 달러당 1149.5원으로 전날 증가보다 14.5원 올랐다.

채권도 다시 각광 받고 있다. 이날 미국 재무부 10년 만기 국제 금리는 12bp(1

bp=0.01%포인트) 하락한 1.74%를 보이며 브렉시트 직후인 6월 27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뭉치돈이 채권시장으로 몰리면서 채권금리가 내린 것이다. 인도 10년물 국제 금리는 8bp 떨어진 6.71%를, 한국의 국제 금리는 10bp 떨어진 1.60%를 보였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다.

정책당국은 당분간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될 것으로 보고 긴장감을 가진 채 긴급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클린턴이 당선됐을 경우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이 됐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박 대통령 제안
일고의 가치 없어”

野3당 대표 회동
12일 집회 적극 참여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 대표는 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전날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국회 추천 총리’ 제안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공동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12일로 예정된 ‘민중총궐기 집회’에 야 3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4·5면>

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이번 사태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12일 촛불 집회에 당력을 집중해 적극 참여하며 ▲강력한 검찰수사 촉구 및 별도 특검과 국정조사를 신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박 대통령의 제안이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임위·예결위를 통한 민생·국가 안보 챙기기에 나서며 ▲12일 이후 정국 현안과 경제·안보 논의를 위해 재회동하기로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 추천 총리의 권한이 모호하고 2선 퇴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담기지 않아 정략적 의도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야3당은 박 대통령의 거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보이며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 요구에 의견을 같이 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박 대통령의 탈당을 조건으로 거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면 지체 없이 임명해 거국중립 내각의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배성래 홍보수석은 이날 “거국중립내각은 헌법에 없는 언어이지만 총리가 내각 통할한, 각료 임명제정권과 해임건의권 모두 행사하는 것을 대통령이 확실히 보장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생각한다. 반응한다.
지능적으로

The New E-Class. Masterpiece of Intelligence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삼부대로 1041 (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 300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4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8km/ℓ (도심연비: 9.6km/ℓ, 고속도로연비: 12.6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1g/km E 30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790kg, 자동9단), 복합연비: 10.3km/ℓ (도심연비: 9.3km/ℓ, 고속도로연비: 12km/ℓ), 등급: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69g/km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